

이주의 추천음반

기획 : (주)카이오스 (:한국)



Whole Life Worship Album Vol. 1

홀라이프워십의 정규 앨범 1집, WHOLE LIFE WORSHIP은 총 13곡의 찬양과 예배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곡에는 스웨덴 화가 EMI가 각 찬양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완성한 특별한 작품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앨범 안에는 각 곡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더불어

EMI의 작품 설명을 함께 담았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독창적인 작품들을 통해 귀와 입으로 찬양하는 것을 넘어, 눈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경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시각 예술과 찬양이 결합된 이 앨범을 통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홀라이프워십

홀라이프워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팀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 낮고 넓은 곳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 세계에 흘러넘치기를 꿈꾸며,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를 통해 사람들을 섬기는 열린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홀라이프워십의 정규 앨범 1집

홀라이프워십의 정규 앨범 1집은 총 13곡의 찬양과 예배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곡에는 스웨덴 화가 EMI가 각 찬양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완성한 특별한 작품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앨범 안에는 각 곡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더불어 EMI의 작품 설명을 함께 담았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독창적인 작품들을 통해 귀와 입으로 찬양하는 것을 넘어, 눈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경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시각 예술과 찬양이 결합된 이 앨범을 통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대를 잇는 찬양: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가 전해주는 영적 유산, 미션21 찬양26 주년을 축하하며...

"좋은 찬양이란 무엇인가?" 5년 전, 첫 칼럼을 쓸 때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아직도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찬양의 형식과 표현도 더욱 다양해졌지만, '좋은 찬양'의 본질은 여전히 한 가

서 너무 소란스럽고 '활기찬' 예배에 대한 피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왕기 2장 15절 말씀, 즉 "여호와와 영이 엘리야 위에 머물렀다"는 구절에서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가 감지될 때 인간의 할 일은 침묵과 경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찬양을 통해 사람들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이 멈추기를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 찬양은 오케스트라나 밴드의 웅장한 사운드가 없어도, 작은 공동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실제 임재에 대한 인식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앞에 엎드리는 고백입니다.

이번 26주년 기념 아티클에서 소개하고 싶은 곡은 바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Be Still for the Presence of the Lord)"입니다. 데이빗 제이 에반스(David J. Evans)가 1986년에 작사·작곡한 이 찬양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예배곡이 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 교회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곡이 가진 힘은 단순한 멜로디나 구절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단순함 속에 담긴 경외와 침묵의 영성이 오늘날의 복잡한 신앙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깊은 예배로 초대합니다.

찬양의 배경 이야기

에반스는 이 찬양을 쓸 당시, 교회 안에

세대를 초월하는 힘

이 찬양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세대의 예배자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젊은 청년부가 부를 때는 사색적이고 묵상적인 찬양으로, 시니어 세대가 부를 때는 기도와 간구가 담긴 믿음의 고백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이 곡을 부르는 중,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났던 성도가 회개의 눈물로 돌아왔다는 간증도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소란스럽지 않은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여셨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일화들은 우리에게 찬양이 단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다리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찬양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책임

이제 우리는 좋은 찬양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좋은 찬양을 세대 간에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는 시대를 뛰어넘는 찬양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외형보다 중심, 감정보다 임재, 표현보다 진심이 중요한 찬양. 그런 찬양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예배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모아지길 기도합니다.

이제 7, 8월 아동부, 청소년,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의 시즌으로 갑니다. 올 해 또 한번 지나가는 그런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다속으로 들어가서 잠기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 불리어질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맞이하는 회심의 시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동 영

아이노스 찬양선교회

설교의 맛을 내는 예화13

[겸손 · 교만]

이웃을 위한 겸손

유명한 흑인 교육가 부커 워싱턴 박사가 있다. 그는 앨라배마에 있는 터스키기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후 그 지역의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어느 백인 부인이 그가 워싱턴 박사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흑인 이력녀 해서 뭉치 세우고 몇 달러 줄 테니 장작이나 패달라고 요청했다.

총장은 그때 특별한 일이 없었고 시간애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웃으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서 그녀의

벽난로 옆에 차곡차곡 쌓아주었다.

일이 다 끝나 그가 돌아간 후 그 집 흑인 하녀가 그를 알아보고 주인에게 알려 주었다.

그 부인은 너무 부끄럽고 당황해서 다음날 아침에 총장실로 찾아가 백배 사죄했다.

그러자 부커 워싱턴 총장은,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가벼운 육체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웃을 위해 돕는 것은 언제 기쁜 일이지요"하며 위로를 했다고 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나를 몰라보느냐는 등 내가 누구냐는 등 하며 한껏 난리를 치고도 남을 상황이었을 텐데도 그는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정말 겸손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세워주신다.

본지는 위 글을 펴낸곳과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 (펴낸곳 크리스천리더 / 출판기획팀 지음)

도움,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직장인쿨링 100일 묵상집

2.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실행이 없는 비전은 비극

비전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꽤 많다. 그런데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다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 예수님의 산상 수훈의 결론도 열매로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침착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쓴 켄 블랜차드가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실행에 문제의식을 느껴 '춤추는 고래의 실천'이라는 책으로 실행을 강조했다.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을 반복해야 한다. 막연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주

잊어버린다. 들을 때 고개를 끄덕거리도 세 시간이 지나면 절반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하루가 지나면 또 절반을, 한 달 후에는 5퍼센트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 반복해야 한다. 또한 실행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substance)'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evidence)'(히11:1)라고 강조하며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을 시작한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결국 실체가 된 증거가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따라서 믿음은 긍정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되는 힘이 있다. (고후1:20).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반복해서 실천하며 긍정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하자.

>>> 일하는 사람의 기도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겠습니다. 비전을 위해 반복해서 실천하며 긍정의 믿음으로 매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본지는 위 글을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 (원용일 목사 지음/도서출판 브니엘)

미션리
구독 및 광고 문의

T. 062)367-9109
F. 062)367-9108
phj2930@nate.com

미션리 창간26주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교회

담임목사 정찬군

교회를 섬기는 본분

- 안수집사(장로) : 이웅수

예배시간

- 새벽기도회 : 새벽 5:00
- 주일예배 : 오전 11:30
- 오후성경공부 : 오후 2:30
- 수요일예배 : 오후 7:30
- 금요일기도회 : 저녁 8:30
- 유·초등부예배 : 주일오전 11:30
- 유치부예배 : 주일오전 11:30

기독교 한국침례회 **수정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통암1로 7 ☎ 232-0354

미션리 창간26주년

예배회복을 위한 나이스크 FAMILY CONFERENCE

Touch his nail scarred hands(john 20:25)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대상 예배회복을 원하는 모든 사람 (초·중·고등부, 대학·청·정년)

일시 2025년 8월 18일(월)~ 20(수) 2박3일

장소 광주 바이블 칼리지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도동길 42-34 나이스크 광주전남 본부

주관 나이스크 광주전남 본부

등록 및 문의 초기등록 010-2601-2912 7월 31일까지 선착순 200명

등록비 10만원 (농협 355-0083-6564-63) T-shirts, 교재, 숙식, 침구 제공

강사 피종진목사 (NWM 총재)
Rev. Goshen Choi (NWM 대표회장)
Rev. Ezra E. Kim (NWM 사무총장)
Rev. Timothy Hwang (NLS 실장)
Rev. David H. Kang (GTS 교수)
Rev. David N. Jeon (GTS 교수)

"예배회복이 있는 곳에서는 예배회가 있는 곳으로"

NYSKC WORLD MISSION
127 Eatontown Rd, Greenville NY 10940 Tel(845-224-3277)